



# 잊혀진 시간을 쫓아온 길, 금강 한자락에서 숨을 돌리다.

고인쇄문화 산증인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식

때로는 먼 길을 돌아 걷고 싶을 때가 있다. 지름길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매력 때문이다. 천천히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사람의 인생도 그 길과 닮아 있다.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우수성과 고활자 연구로 잘 알려진 파른 손보기 선생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공주 석장리박물관에서 열린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식을 다녀왔다.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손보기 교수와 구석기문화

금강 옆으로 난 도로를 달려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에 도착했다. 넘실거리는 금강과 완만한 산을 보다 보니, 옛사람들도 이곳에 반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구에 내려 걸어가는데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차레로 얼굴에 내려왔다.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은 도로 입구에서 200미터 정도 걸어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린이날 답게 박물관은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선사문화축제가 그림그리기대회가 이날 함께 열렸기 때문이다.

## 그림그리기 · 선사체험 등으로 꾸며진 선사축제

박물관 입구를 들어서니, 옛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은 움집이 넓은 잔디밭에 세워져 있다. 그 주변으로 원시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한쪽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의식에 대한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전해오는 노래들이란다. 그 노래의 수만 몇 백 개에 이른다고 하니 옛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사축제는 박물관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5월 초부터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열린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주와 인근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축제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는 원시인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가 열려 많은 아이들이 참가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넓은 잔디밭에 앉아 도화지에 그들만의 상상을 그리고 있었다.

## 선사인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해

박물관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기획해 제공했다. 아이들과 함께 유년시절로 돌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선사시대의 옛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함께 그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은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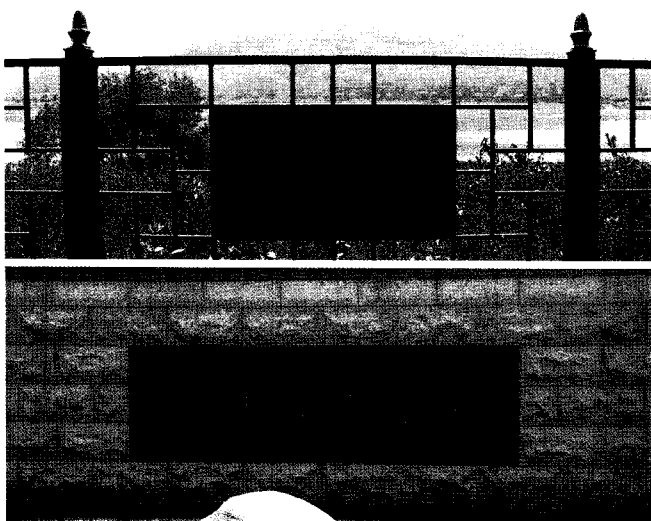
체험프로그램으로, 선사시대 체험, 선사문양 목걸이 만들기 체험, 갈돌갈판 체험, 돌도끼 기념품 만들기 체험, 돌화살 만들기 체험, 발굴체험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조그마한 돌을 갈아서 화살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돌을 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와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행사도 진행됐다. 우리집 가훈 써주기, 어린이를 위한 풍선아트, 어린이 영화 상영, 페이스페인팅, 한지를 이용한 구석기문화체험, 선사시대 퀴즈, 인절미 떡메치기 등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찾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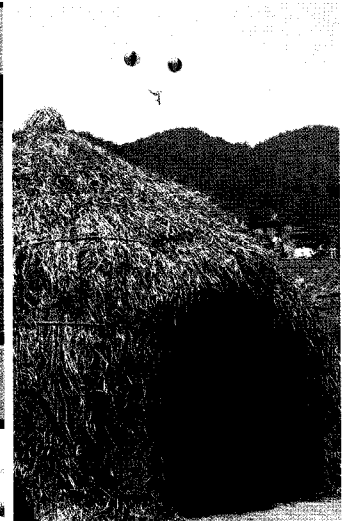
## 옛사람과 만나는 곳, 석장리 박물관

공주 석장리는 손보기 선생이 처음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1964년 처음으로 발굴되기 시작해서 10여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유물들은 수 만년 전의 구석기에서부터 신석기까지 이르는 한반도의 잃어버린 역사를 알려주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주시는 현재의 장소에 부지를 마련해 박물관을 세우는 준비를 해왔고, 2006년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문을 열었다.

전시관은 건축가 이응목의 작품으로 외부에는 왼쪽은 석기 때는 구석기인 동상과 석장리 출토 대표석기 5점의 모형, 오른쪽은 사냥하는 구석기인 동상과 반구대 암각화 모형, 그리고 중앙기둥에는 석장리를 상징하는 주먹도끼 모형이 있다. 내부에는 구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선사문화를 '자연, 인류, 생활, 문화, 발굴' 이라는 5가지 테마로 전시 연출한 상설전시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 전시 될 기획전시, 영상실, 기념품을



석장리박물관모습들. 구석기시대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냥하는 석장리 슬기시렵' 과 '움집'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선사체험행사와 그림그리기 대회로 이날 석장리박물관은 온종일 붐볐다

판매하는 뮤지엄 샵, 각종 정보검색과 실 수 있는 편의시설인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 설명보다는 인형을 통해서 당시의 수렵 모습이나, 불을 얻는 모습, 무기를 만드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테마에 맞는 다양한 전시관을 열어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더욱 실감나게 할 계획이다.

###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유산을 찾기 위한 고독한 여정

손보기 선생은 중학교 시절 일본인들에게 돌을 맞은 적이 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와중에서도,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일본학생에게 다가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 일본학생은 한국인들도 피가 붉은지 알고 싶었다고 한다. 그것이 큰 상처가 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 인쇄 문화였다.

그는 우리나라 금속인쇄술이 서양에 비해 200여 년이나 앞서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실증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고안한 방법을 통해서 일본에게 강탈당했던 옥쇄를 찾아올 수도 있었다. 성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일본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 역사왜곡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허구임을 입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찾기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발견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청동기시대인 고조선에서 이보다 앞선 구석기시대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발견은 당시 세계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유물 발굴 작업을 본

제자들은 그의 작업은 목숨을 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발굴했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밤을 세웠다.

### 손보기선생 연구의 집대성, 파른 손보기 기념관

‘한반도 구석기 연구의 아버지’인 원로 고고학자 손보기(87) 전 연세대 교수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식이 지난 5월 5일 문을 열었다. ‘파른’은 ‘늘 푸르름’을 뜻하는 손 교수의 아호다.

손 교수는 1964년 충남 공주 석장리를 발굴하며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 증명했다. 이는 식민사학이 용납하지 않던 ‘일본을 앞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기존의 논거를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뒤집었다는 의의를 띠고 있다. 손 교수는 1992년까지 12차례에 걸쳐 발굴과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연면적 188㎡의 공간에 전시실과 세미나실, 기증 자료실 등에서 고찰야·인쇄분야, 한국 선사 구석기학 등의 연구 자료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쪽 벽은 파른 손보기 선생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하고 있었다. 책이 가득한 그곳에 한 사람이 겨우 앉아서 연구를 볼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평생을 책과 씨름하고, 현장에서 뛰었던 손보기 선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번에 개관하는 기념관에서는 손 교수가 지난해 기증한 평생 연구 자료와 수집 유물 1만여점 등과 함께 그가 직접 쓴 석장



손보기 교수님 사모님이 손보기 교수를 대신해 책봉정을 받고 있다



수많은 내외빈이 참여한 기념관 개관식 모습과 돌칼로 새끼줄 절단식을 하고 있는 내외빈들

리 발굴 일지도 함께 공개됐다.

한편 공주시청과 시의회, 석장리박물관 그리고 제자들의 뜻이 모아져서 파른 손보기 기념관이 문을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손보기 선생은 병상에 있어서 참석하지는 못했다.

### 수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관

손보기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박희현 서울시립대 박물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간단한 개식, 국민의례로 그 막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채호규 공주 부시장, 김재철 석장리 박물관 관장, 손보기 교수 사모님, 강경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박종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김훈 소설가 등 내외빈과 손보기 선생의 후배와 제자들로 자리를 넓은 공간이 가득 찼다.

손보기 선생의 제자 대표인 최복규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감사패와 사은패 수여식이 있었다. 채호규 공주 부시장, 김재철 관장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손보기 교수 사모님이 손보기 교수를 대신해 감사패와 책봉정을 받았다.

축사에서 채호규 부시장과 강경환 문화재청 과장은 입을 모아 “손보기 선생은 우리나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사람”이라며 “이런 자리를 이제서야 마련된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손보기 선생은 우리 모두의 영웅

이어진 제자들의 축사에서 정영호 단국대박물관장과 최복규 석장리박물관 자문위원장이 나서 파른 손보기 선생에 대한 추억을 꺼내놓았다.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은 “젊은 시절 막무가내로 부딪히고 보는 성격의 자신을 선생은 귀엽게 봐주셨다. 그래서 많은 발굴 작업에 참여시켜주었다.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복규 석장리 박물관자문위원장은 “과거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무척이나 말쑥꾸러기였다. 밤낮없이 진행되는 발굴 작업이 힘들어서 교수님께 노동법을 들어가며 따진 적도 있고, 술을 먹고 발굴 작업에 만나간 것을 뚱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교수님은 그때마다 웃으면서 어린 제자를 다독여주었



고, 제자가 아프다는 말에 먼 길을 걸어오시는 등 따뜻한 분이셨다”라고 말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손보기 선생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으로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 기념관건립에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자리에 참석한 손보기 교수의 사모님은 손보기 선생을 대신해 자리를 마련해 준 공주시청과 석장리 박물관, 그리고 후배와 제자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그녀는 손보기 선생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자신의 지금 마음과 같을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손보기 교수 사모님은 “감사합니다. 아마도 손보기 교수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들 함께 해 준 분들 덕분에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전했다. 이어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새끼줄 절단식이 진행됐다. 구석기 박물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돌칼로 절단식이 이뤄졌으며, 이어 큐레이터를 통해 전시관을 관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시관 관람이 끝나고는 움집 주변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간단한 다과시간을 가졌다. ☺

### 손보기선생은?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중학교, 연희전문 문과, 서울대 사학과, 동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박사)을 졸업했다. 퇴임 후 한국선사문화연구소를 설립했고, 연세대 용재석좌교수,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수상이력으로는 한국일보사 출판문화상 저작상(1972), 외솔상 문화부문 학술상(1976), 세종상 학술부문 학술상(1987), 성곡문화재단 인문과학분야 학술상(1989), 한국인쇄문화상 연구상(1989), 옥관문화훈장(1990),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세종성왕상(2000), 위암 장지연 기념사업회 위암 장지연상(2003)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고인쇄분야 저서로는 한국인쇄기술사, 한국의 고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 직지심경: 금속활자 고증의 경위와 그 의의, 금속활자와 인쇄술, 한국의 고활자,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임진왜란과 일본의 활자인쇄술 등이 있다.